

백두대간 관리범위 및 관리방안¹

신준환²

Management Area and Management Strategy of Baekdudaegan¹

Joon-Hwan Shin²

요약

백두대간이란 개념은 신라말엽-고려초기에 잉태되어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성장하였고, 조선시대에 와서 완성되었다. 이런 백두대간 개념을 오늘에 복원하기 위해서는 첫째, 백두대간은 마루금이 아니라 영역의 개념이며, 둘째, 백두대간은 산마루의 모임이 아니라 수계(水系)와 산계(山系)의 결합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백두대간 관리범위를 설정할 때에는 전통사상에 입각하여 기준을 잡고, 자연환경을 감안하여 이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설정된 관리범위는 3차 수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전지역은 최소한 1차 수계는 포함해야 할 것이며, 백두대간 관리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형훼손을 방지하는 것이다. 백두대간은 우리나라를 세계만방에 알리는 이름인 Korea, 즉 고려(高麗) 정신을 대표하므로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은 남북통일의 초석을 놓는 일이기도 하다.

주요어 : 개념형성과정, 개념복원

ABSTRACT

The concept of Baekdudaegan(Korean traditional and major mountain system) was conceived toward the close of Silla Kingdom and in the beginning of the Goryeo dynasty. The concept was brought up through the Goryeo dynasty and was completed in the Joseon dynasty. We have to recognize the next two facts to restore the Baekdudaegan concept these days. Firstly, Baekdudaegan is not the highest watershed line but a domain. Secondly, Baekdudaegan is not a set of ridges but a corporate body of a water system and a mountain system. When it comes to fix the management area of Baekdudaegan, it is necessary to make criteria on the basis of traditional ideas and to include natural characteristics considering physical environment. The management area of Baekdudaegan include the third order of stream with the conservation area including the first order of stream.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management strategy is to prevent the damage of configuration of the ground. Baekdudaegan is a symbol of Korea spirit. Therefore, to manage Baekdudaegan wisely is one of ways to lay down the stepping stone of our country's reunification.

1 접수 3월 31일 Received on Mar. 31, 2004

2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환경부 산림생태과 Division of Forest Ecology, Department of Forest Environment,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Seoul (130-712), Korea(kecolgy@chol.com)

KEY WORDS : PROCESS OF THE CONCEPT DEVELOPMENT, RESTORATION OF THE CONCEPT

서론

백두대간이란 역사시대에 형성된 개념으로,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원산, 낭림산, 두류산, 금강산, 오대산, 태백산, 속리산, 장안산을 거쳐 지리산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의 큰 산줄기를 형성하면서 물줄기를 동서로 가르는 국토의 골간을 말한다(현진상, 2000).

그런데, 백두대간의 관리범위를 설정하고 관리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백두대간은 역사적으로 1000년의 세월 동안 그 개념이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지리적으로는 1400km 이상에 걸쳐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백두대간의 개념은 세상이 어지러워진 신라말경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선승(禪僧)들이 국토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다시 계획하는 과정에서 잉태되었다고 볼 수 있다(최창조, 1990; 최병현, 2002). 그 후 고려시대를 지나면서 성숙되고 조선시대에 들어서 완성되기까지 색다른 역사적 배경을 경험하였다. 더구나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역사의 밑으로 침잠했던 것인데, 시대적 배경이 여러 가지로 달라진 오늘에 그 개념을 되살린다는 것은 백두대간을 보는 관점마저도 다르게 할 수 있다. 또한 지리적인 차원에서 볼 때 백두대간이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 태백산, 속리산을 거쳐 지리산에서 끝날 때까지 그 주변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현저하게 달라진다는 점도 관리방안을 모색하는데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백두대간의 관리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백두대간 개념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백두대간의 개념을 오늘에 되살릴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선결과제가 될 것이다. 나아가 전통사상에 입각한 관리범위 설정 기준을 알아보고, 백두대간의 식생지리와 야생동물의 분포와 같은 자연환경을 평가한 후, 역사와 자연환경을 총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백두대간의 관리범위를 설정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재료 및 방법

이 연구의 자료는 삼국시대의 신화와 전설에 대해서는 삼국유사(고운기, 2001)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고려사에 나오는 내용은 최창조(1990) 등 여러 연구자가 채록 분석한 결과를 참고하였다. 그 외에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선인들의 산에 대한 의식이나 백두대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 당시의 설화나 산에 대한 생각을 모은 글과 시편을 참고하였는데, 특히 제왕운기(김경수, 1999), 성호사설(최석기, 1999), 택리지(노도양, 1988),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최석기 등, 2001), 조선시대 선비들의 백두산 답사기(이상대, 1998), 대동여지도(원경렬, 1991), 산경표(현진상, 2000) 등에 많이 의지하였다.

백두대간의 이해에는 신화와 음양오행, 그리고 풍수지리 등 전통사상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더구나 선인들은 현대와 같이 분석적인 사고가 아니라 통합적인 파악에 기본을 두고 자연을 대하였기 때문에 이런 전통사상을 이해한 깊이만큼만 백두대간의 실체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일반적인 논문을 쓰듯이 가설을 세우고 자료를 모아 통계를 분석한다고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필자는 여러 경로로 이런 전통사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수시로 백두대간을 답사하여 이론과 필자의 내적 감응이 일치할 때를 기다리며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갔다.

백두대간 관리범위의 기준을 잡는 방법을 예로 들어 본다. 그동안 백두대간 관리범위는 대략 마루금에서 700m, 300m(이상 환경부 안, personal communication), 1km(국립산림과학원 사전 검토 안, personal communication) 등 미터법에 따른 거리를 기준으로 작업을 했으나, 백두대간 개념이 형성되는 시기에는 이 땅에 미터법이 있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선인들은 통합된 체계를 생각한 것이지 단순한 거리를 재고서 백두대간을 논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었다. 또한 고문헌을 소개한 책에서 선인들은 산줄기와 물줄기를 항상 같이 봐왔다는 것은 알았으나 어디까지를 보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못해 고민하고 있었다. 크게 보면 국토 전체가 들어오는데, 이것을 관리범위라고 내놓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고민 중에 덕유산 구간을 답사할 때 비바람이 엄청나게 몰아쳤는데, 미리 장안산 무령고개에서 산길과 물길을 한꺼번에 본 다음이라서인지 아니면 비바람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길을 볼 수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노자 도덕경에서 삼에 이르러야 만물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구절이 문득 떠오르면서, "하나는 외롭고 둘은 대립하니 석 삼이 크게 좋다."라는 내적 감응이 일어나는 것이었다. 그래서 3차 수계까지를 백두대간 관리범위로 삼는 것이 전통사상과 어울리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접근 방식이 현대과학의 분석적인 사고체계와

는 어울리지 않지만, 통합과학으로 나갈 때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런 접근 방식은 전통 개념을 복원할 때에는 한번씩 필요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인데, 필자는 최근에 전통마을 숲에 대한 이해에도 이 방식을 견지하고 있다.

현지 조사는 1999년, 2002년 2차례 백두산에 들었고, 지리산에는 수차례 다녀왔으며, 백두대간의 식생은 1996년, 1997년도에, 백두대간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은 2001년과 2002년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결과 및 고찰

1. 백두대간의 개념형성 과정

1) 백두대간 개념의 잉태 - 신라말 고려초

우리나라 자연환경의 중심은 백두산이다. 만주에서 광야를 달리다가 처음으로 우뚝 솟은 백두산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국의 고서에서도 자주 언급할 만큼 중요한 산이다. 높은 것만 아니다. 정상에는 거대한 천지가 있어 신비로움을 더해주고 있다. 백두산에 살고 있는 생물도 다양하여 온대와 한대를 아우르고 있다. 더구나 동해에서 태양이 가장 먼저 비추는 가장 높은 곳이다. 이런 특징은 자연스럽게 우리 민족의 중심축으로 작용하여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우주산(세계산)이 되었던 것이다. 우주산 또는 세계산은 위로는 하늘과 통하고, 아래로는 세상과 연결되는 축이다. 따라서 백두산은 자연환경의 중심일 뿐 아니라 인문환경의 중심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고구려가 멸망하고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무대에서 멀어져 갔다. 신라의 삼국통일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정신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백두산 주변에 펼쳐진 광대한 영역의 생물자원이 우리 민족의 경영권 밖으로 벗어난 것이다. 그래도 초기에는 신라의 진취적 기상이 살아 있어서 희망을 품을 수 있었으나 신라말경에는 그 기운도 잦아들어 다른 꿈을 꾸어야 했다. 이때부터 선승(禪僧)들은 국토를 조직적으로 보려는 노력과 함께 국토공간의 중심 위치를 한반도 동남단에 편향된 경주로부터 중부지방으로 옮기려는 꿈을 꾸고 있었다(최창조, 1990). 최치원과 같이 신라에 희망을 걸 수 없는 사람들은 태조 왕건을 대안으로 삼았다고 한다(최병현, 2002). 태조 왕건 또한 고려가 명실상부한 통일국가가 되고 우리 민족을 아우르기 위해서는 고구려의 정신을 계승하고 신라의 역사와 후백제의 유민들도 품에 안아야 했을 것이다. 즉 북방과 남방을 함께 포괄해야 했던 것이다. 자연환

경에서 북방의 축은 백두산이고, 남방의 축은 지리산인데, 묘하게도 신라와 후백제를 포함한 남방에서 가장 높은 산은 한반도의 남쪽 끝에 있는 지리산이기 때문에 백두산과 지리산은 상징적으로 두 축을 이루어 고려의 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었다. 그러나 자연환경만 작용한 것은 아닐 것이다. 고려 초기에는 왕권이 강하지 못했다. 각 지방의 호족을 달래야 했으며, 신라와 후백제의 세력도 포섭해야 했다.

역사시대에는 정복한 곳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그 지방의 신화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삼국시대 백제의 왕권신화도 고구려와 같은 천손계(天孫系)의 주몽신화에서 부여로 천도하면서 남쪽의 사회세력을 규합하고자 무왕(武王)대를 고비로 수신계(水神系)의 용신신화로 바꾸었다(고운기, 2001; 서정록, 2001). 태조 왕건도 백두산에 조상의 뿌리를 잇고 지리산에는 성모(聖母)에 기대면서 용신(龍神)의 원력도 받는다. 김관의 「편년통록」에서는 고려 왕조의 시조가 백두산에서 나왔고(최창조, 1990), 이승휴의 『제왕운기』에서는 지리산의 성모가 도선국사를 보내서 왕건이 왕이 될 것을 예언했다고 써어있다(김경수, 1999). 또 태조의 할머니는 원래 용신의 딸, 즉 용녀였다. 따라서 고려 건국의 기초를 천(天 : 백두산), 지(地 : 지리산 성모), 용(龍 : 태조의 할머니)에 두고서, 북으로는 고구려 정신을 잇고 남으로는 한반도 중남부를 통틀어 가장 높은 지대인 지리산을 아우르고 남방문화까지 받아들이는 과정이 백두대간의 개념이 잉태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한 것이다.

2) 백두대간 개념의 성장 - 고려시대

백두대간의 개념이 구체성을 띠는 과정은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과정만이 아니라, 고려 초의 사회 중심세력이 국가의 중심을 세우는 정치적 과정과 상호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고려 후기까지 지속되어 이승휴가 스스로 밝힌 것처럼 충렬왕 13년(1287)에 『제왕운기』를 지은 동기도 고려의 중심을 세우려는 것이었다(김경수, 1999).

이런 역사 과정을 거쳐 고려 후기에 오면 백두산과 지리산의 연계가 상징적인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이인로는 파환집에서 지리산 청학동을 설명하면서 백두산과 지리산으로 연결되는 산줄기를 꽃봉오리와 꽃받침의 이음으로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최석기 등, 2001). 공민왕 6년(1357)에 사천소감(司天少監) 우필흥(于必興)은 우리나라 땅의 맥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지리산에서 끝나는데, 생긴 모양을 볼 때 '수근목간(水根木幹)'의 땅이라 하였다(최창조, 1990). 여기서 백두산과 지리산이 구체적으로 연결되

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고려 후기에 들어오면서 비록 백두대간이란 용어는 쓰이지 않았지만 백두대간의 처음과 같은 확정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지도상에도 자연스럽게 표현되었다. 한영우(2001)는 이첨(李詹)이 「삼국도후서 三國圖後序」에서 고려도를 설명한 것을 보고 고려시대에 이미 지도상에 백두대간을 표현한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백두산과 지리산을 잇는 우리 산천의 짜임새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백두산을 향해 북방으로 뻗으려는 진취적 기상을 고취하고 국가의 중심을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백두대간의 개념도 점점 더 구체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3) 백두대간 개념의 완성 - 조선시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백두대간 식으로 산을 파악하는 것을 일반 행정업무에도 활용하였다. 세조 9년(1463)에는 병조(兵曹)에서 함부로 돌을 캐는 사람에 대한 법을 집행할 때 도성 부근에서만 채석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한양에서부터 백두대간 위의 돌을 캐는 사람은 모두 벌을 어긴 죄로 다스리기를 청하고 왕의 허락을 받아 그대로 시행하였다(산림청, 1997).

또한 숙종과 영조대에 청나라와 국경분쟁으로 정계 비를 세우는 과정을 거치면서 백두산을 포함한 북방지역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어, 영토, 정치적인 측면 뿐 아니라 이 지역의 사회, 인문, 경제적 측면까지 확대되었다. 즉 국토 전역을 균형적으로 보는 넓은 차원으로 관심이 진전된 것이다. 백두산이라는 산에 대한 점적(點的)인 대상에 주목하였던 것에서 나아가 백두산을 포함한 북방지역 전체, 그 지역의 주민, 주민들의 삶에까지 관심의 폭이 넓어졌다. 백두산으로부터 뻗은 줄기와 가지로 연결되는 산맥 체계를 이루었다고 보는 백두대간 개념은 위와 같은 국토에 대한 포괄적, 균형적 관심에서 더욱 체계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산림청, 1997).

그런데, 백두대간이란 용어가 온전한 형태로 쓰인 것은 「택리지」와 거의 동시대에 저술된 「성호사설」에 처음으로 나타난다(최석기, 1999). 이 두 서적을 보면 1700년대에 백두대간의 개념이 이미 구체화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익은 백두산은 우리나라 산맥의 조종인데,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중간에 태백산이 되고, 두류산(지금의 지리산)에서 끝난 것을 '백두대간'이라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백두대간 개념의 형성과정은 「산경표」에서 구체적으로 완결되어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산줄기를 중심 줄기뿐만 아니라 여기서 뻗어나간 가지까지 족보에서 보듯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또한 백두대간을 구

체적이고 상세하게 표현한 지도는 철종말부터 고종초의 시대인 1850년대 말부터 1860년대 초에 김정호가 편찬한 「대동여지도」이다(원경열, 1991; 한영우, 2001). 이로써 백두대간과 장백정간, 그리고 13정맥의 체계를 잡고 백두대간 개념의 완성을 본 것이다.

4) 백두대간 개념형성 과정의 의미

백두대간의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은 우리 자연에 대한 인식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이었다. 국토전체를 통일적으로 보고자하는 오랜 노력 속에서 백두대간이란 개념이 오롯이 떠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돌이켜 보면 신라 말경에 각 지방의 특성과 의미를 파악하고 나라의 새 판을 기획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 우리 선조들이 들어온 이후 수천년간 산천을 누비고 다니면서 각 지방의 물길과 산길의 흐름을 손금 보듯이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물론 처음에는 자기의 동네에서 출발했을 것이나 동네 뒷동산에서 다른 동네로 넓혀가면서 마침내 백두산에까지 다다르고 백두대간의 개념이 잉태된 것이었다. 그리고는 고려시대에 백두대간의 개념이 성장하고 조선시대에는 완성된 것이다.

국토에 대한 지식을 물에 비유하여 표현하면 백두대간을 인식하는 과정은 각 동네에 물을 채우고 이 물이 낮은 곳부터 서서히 채워 들어가 마침내 한반도가 거의 다 물에 잠길 때 백두대간이 오롯이 떠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것을 잊어버린 우리가 그 개념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백두대간은 하나의 산줄기만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연체계 그 자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한창 유행을 타고 있는 백두대간 마루금 위주의 행사진행이나 관리 범위 설정만으로는 우리 고유의 백두대간을 오늘에 제대로 되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2. 백두대간 개념 복원의 원칙

제 1 원칙 : 백두대간은 마루금이 아니라 영역의 개념이다.

백두대간 개념형성 과정을 살펴 볼 때 백두대간은 마루금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산천의 짜임새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국토의 줄기를 이루고 있는 영역이다.

백두대간의 개념형성 과정에 나타난 고문헌들은 이를 잘 표현하고 있다. 「택리지」를 보면 주흘산은 백두대간 마루금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백두대간으로 표현하였고, 월악산도 백두대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오대산도 마루금에서 벗어나 있지만 「삼국유사」에서는

오대산을 백두산에서 뻗어내린 큰 줄기로 보았다. 『산경표』에서도 백두대간은 영역으로 나타난다. 『산경표』에서는 백두대간의 마루금을 지나는 산 뿐 아니라 주변 산(예를 들면 오대산, 계방산, 월악산, 주흘산)도 기록하고 있다.

더구나 백두대간의 마루금은 두부침식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변하는 것이다. 두부침식이란 물길의 머리부분, 즉 골짜기의 맨 위쪽에서 일어나는 침식작용을 말한다. 이로서 하천은 길이를 연장하며, 두 하천의 분수계가 접하고 있을 경우에는 두부침식이 더 센 한 쪽이 다른 하천의 상류 부분을 빼앗는 하천쟁탈이 일어난다. 지금은 동해로 가는 고성 남강, 강릉 남대천의 상류는 원래는 동해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한강의 지류로서 서해로 흘렀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백두대간의 가장 기초적인 의미인 물길을 나누는 것도 틀려지는 것이다. 백두대간을 선으로 보면 사소한 하천 쟁탈에도 백두대간의 마루금을 고쳐야 하지만 영역으로 보면 모두 백두대간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

또한 백두대간을 영역으로 보지 않으면 실제로 백두대간을 답사할 때도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 백두대간의 개념은 광역적이거나 실제로 마루금은 국소지형인 분수계로 정하기 때문에, 백두대간에 서서 느끼는 것과 걸어가야 될 마루금이 다른 경우가 수두룩하다. 백두대간은 인식체계와 현실체계의 결합체이기 때문에 이런 모순은 해소되어야 한다. 고지도에서는 백두대간을 그럴 때 선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영역으로 그렸다.

제 2 원칙 : 백두대간은 산마루의 모임이 아니라 수계(水系)와 산계(山系)의 결합체이다.

여기서 신경준의 『산수고』 서문을 들어보면, “하나의 근본에서 만 갈래로 나누어지는 것은 산(山)이요, 만 가지 다른 것이 모여서 하나로 합하는 것은 물(水)이다.”라고 하였다(양보경, 1992).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산줄기의 체계는 산과 강을 기준으로 한 생활권의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산줄기 위주로 유역의 경계가 되면서(山自分水嶺), 산줄기 전체가 연결되면서 고을과 동(洞)네를 묶어준다(自然人文地理). 자연인문지리란 말 그대로 자연과 인문이 결합된 지리라는 뜻도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연히 인문지리가 된다는 뜻도 될 수 있다. 또한 사람의 살림살이나 생물의 생활이 산줄기와 물줄기를 타고 전국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산줄기 체계의 특징은 산길과 물길을 태극의 음양처럼 통일되는 체계로 본 것이다. 산은 물을 가르기 때문에 하천의 수계를 기준으로 산줄기를 나누었다. 같은 수계는 한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산줄기를

나눈 것이다. 수계를 기준으로 하였다라는 것은 산줄기만 따로 파악했다기보다, 물길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생활권 내지 지역권을 형성하고 있었던 인문환경까지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백두대간이 수계와 산계의 결합체라는 두 번째 근거는 백두대간의 13정맥 중 지방 이름에서 따온 해서정맥과 호남정맥을 제외한 11정맥은 강을 중심으로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다. 이는 산이 곧 물의 생산지라는 의미를 띠고 있는데, 산과 물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연장이라 볼 수 있다.

세 번째 근거는 백두대간은 산계의 용기작용과 함께 수계의 침식작용의 결합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두부침식의 과정을 고려할 때 마루금은 변하는 것이고 영역이 중요하다는 점과 상호보완적인 근거가 된다. 지금의 백두대간은 이 땅의 내적 영력(지구 내부에너지)이 지각에 작용하여 지반을 용기 시키는 작용)과 외적 영력(지표에서 암석의 풍화, 침식, 운반, 퇴적 등으로 지표의 모습을 변형시키는 작용)이 오랜 세월동안 상호 작용한 결과로 형성된 것이다.

제 1 원칙에서 우리는 백두대간의 관리범위를 마루금을 기준으로 좌우 몇 미터, 혹은 몇 킬로미터라는 식의 폭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산천의 짜임새를 기준으로 관리범위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산줄기를 볼 때에는 수계로 가능하고, 물줄기를 볼 때에는 산계로 가능하는 제 2 원칙에서 우리는 백두산과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의 관리범위를 규정하자면 그에 딸린 수계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백두대간 관리범위로 규정해야 하는가? 이 문제는 전통사상의 틀에 기준을 두고 식생지리와 야생동물의 분포와 같은 자연환경을 평가한 결과를 포괄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면서 풀어가야 할 것이다.

3. 관리범위 설정

백두대간 개념이 역사시대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오늘에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사상체계, 즉 전통사상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다. 전통사상을 미신으로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 당시에도 분명히 땅을 보는 지식체계가 있었다. 다만 그 지식체계가 오늘의 지식체계와 표현방식이 다르다는데 문제가 있다. 표현방식이 다르다고 미신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다. 땅에 대한 전통사상이나 음양오행설은 오랜 세월동안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이들이 변하는 시간에 따라 땅위의 현상은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또 농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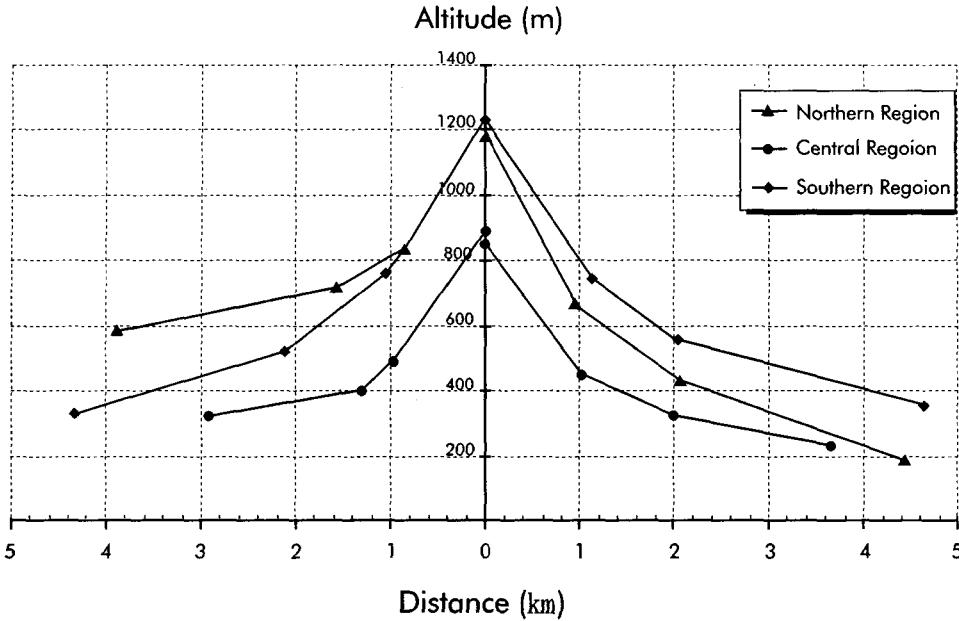


Figure 1. Distance from the highest watershed line of Baekdudaegan to the diverging point of stream order between Hyangrobong and Jirisan(Shin *et al.*, 2003)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하늘의 운행과 잘 맞아가는 지를 다시 검토해 보고 계속 수정해 나간 동양의 하늘과 땅에 대한 지식체계였던 것이다. 컴퓨터가 없던 그 시절 열 손가락 안의 숫자를 가지고 땅과 세상의 살림살이를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 하던 과정철학이었던 것이다. 그 결과 하도와 낙서가 나오고 주역까지 펼쳐지면서 인간의 세상사를 예측하고 대비하며 살아갈 과정에 대한 지혜를 찾고자 했던 것이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일주일 내내 음양오행을 돌고 있다. 일년 365일도 그렇게 만들어진(simulated) 역법이다. 따라서 전통사상은 아직까지 우리 삶의 틀을 상당부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과거에 전통사상의 체계로 형성된 백두대간은 당연히 그 체계에 기반을 두고 관리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전통사상에서 3은 안정된 느낌을 주는 숫자이다. 옛날 말투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는 외롭고 둘은 대립하나 삼에서 안정된다. 구미래(2000)에 의하면 이 삼의 안정은 변화하는 중의 안정이다. 삼은 양수의 시작인 1(순양), 음수의 시작인 2(순음)이 최초로 결합해서 생겨난 변화수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천지인(天地人) 삼재사상이나, 천상계, 지상계, 지하계의 삼계사상

모두 3이다. 단군신화에서도 3이라는 숫자가 기본을 이루면서 많이 사용되었고(구미래, 2000), 노자 도덕경에서도 도(道)는 일을 내고, 일은 이를 살리며, 이는 삼을 기르고, 삼은 만물을 이룬다고 하였다(최진석, 2001). 이는 3에서 형이 갖추어 진다는 의미이니 백두대간의 관리범위도 3차 수계까지는 설정되어야 아쉬우나마 전통을 오늘에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자연환경을 평가한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식생지리 인자를 가지고 백두대간 보전지역의 표고범위를 도출해 보면, 향로봉에서 피재 사이의 구간인 북부권역의 경우에는 해발 700m 이상, 피재에서 궤방령 사이의 구간인 중부권역에서는 해발 500m 이상, 그리고 궤방령에서 지리산 구간인 남부권역에서는 해발 600m 이상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다(신준환 등, 2003). 이 범위는 백두대간의 1차 수계보다 약간 더 큰 범위가 된다(Figure 1).

야생동물의 경우 백두대간의 관리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종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서식하고 있고, 먹이사슬에서 최고차 소비자에 속하는 삼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삼은 그 행동권의 크기가 대략 6-7 평방킬로미터 정도인 것으로 알

려져 있는데, 이는 반경 약 2.5~2.6km 정도의 지역을 의미한다(신준환 등, 2003). 숲을 비롯한 대부분의 포유류는 산악지대에서 6, 7부 이상에서 능선에 이르는 범위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백두대간의 관리범위는 능선에서 좌우 약 5 km 이상을 포함하면서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수달이 서식하고 있는 수계 역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신준환 등, 2003). 이렇게 볼 때 야생동물의 경우 적어도 3차 수계를 포함시켜서 관리범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의 범위인 1차 수계를 포함하는 영역을 보전지역으로 설정하고, 3차 수계까지 포함하는 영역을 관리지역으로 설정하여 자연환경의 여러 가지 속성이 가능한 한 많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백두대간 관리방안에 대한 제언

이와 같은 역사적·지리적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백두대간의 전 범위에서는 고유지리인식의 기초가 되는 지형훼손을 방지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생태와 생활 환경에 대해서는 관리범위 내에 관리구역을 설정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관리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관리 범위가 확정된 후에 관리구역을 세분해서 제안해야 할 것이고, 관리범위 설정에 대한 연구보고를 하는 지금 단계에서는 우선 전체적인 관리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형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보전지역 내에서 만이라도 채석장, 광산의 신규허가를 중단하고, 폐광지와 터널 개통후 방치된 도로를 복원하며(이 때 역사적인 도로는 주변환경과 어울리게 정비한다), 임도 주변에는 자연발생적인 야생화원(예, 금대봉 임도)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백두대간에 있는 묘지에 대해서는 연고자를 파악하여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백두대간의 특성도 살리고 문화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백두대간에서도 농사도 많이 짓고 마을도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이들을 규제하기 보다는 이들을 통해서 백두대간의 문화창달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채소밭, 과수원, 논 등에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을 자제하고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도록 유도하고, 대규모 목장에는 분뇨를 처리하고 생태통로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경관개선 및 관광수익을 도모하도록 유도하며, 염소 방목지 등 소규모 목장에는 환경오염을 줄이는 조건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나서서 거기서 생산된 상품의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주택과 마을은 백두대간 마을로 지정하

고 백두대간 문화발상지로서의 역할을 유도하며, 유기농법 또는 환경보전형 목축 등으로 생산된 농축임산물의 품질과 상징성을 국가가 인증하여 백두대간 문화창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백두대간을 전 범위에 걸쳐 방치하기 보다는 산림경영을 촉진하여 잘 가꾸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유림에 대해서는 백두대간 특성에 알맞은 경영유도 방안(산나물 재배지 포함)을 마련하는 등 사유림지원 차원의 방안을 강구하고, 국유지의 인공림은 장벌기의 골라베기(택벌)를 유도하며, 백두대간을 살릴 수 있는 산림경영계획을 입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론

백두대간 개념 형성과정에서 알아보았듯이 백두대간은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는 이름인 Korea, 즉 고려(高麗) 정신을 대표하고 있다. 이런 백두대간을 거론할 때에는 첫째, 마루금을 포함한 영역으로 보아야 하고, 둘째, 산지만이 아니라 수계와 산계의 결합체로 인식해야 할 것이며, 셋째, 생태통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자연인문지리도 감안하여 우리 민족이 백두대간을 꿈꾸었던 그대로 되살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백두대간의 관리방안을 모색할 때 산림경영을 못하게 할 필요는 없다. 우리 선조들은 백두대간의 지형훼손을 금지하였지, 산림경영을 막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중환도 백리지에서 “지리산 높음 봉우리 위에 기장과 조를 뿌려도 무성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하면서 산림경영을 나무라는 기색이 전혀 없고 오히려 생산의 가치를 높이 인정한 느낌이다. 더구나 산림경영은 환경을 파괴하는 기술이 아니라 환경을 지키면서 생산하는 지식체계이다. 그렇더라도 지금은 사람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자연과정과 균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경영방식을 조절 할 필요는 있다. 백두대간의 생태적 자원과 생물다양성은 미래 경영의 기반인데, 과도한 경영행위로 이들을 훼손하고 나면 앞으로 경영할 자원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백두대간에서 산림경영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지침이 있다. 과거에는 나무는 보면서 숲은 보지 못한다거나, 또는 숲은 보면서 나무는 보지 못한다는 물음이 중요했다. 그러나 이제 백두대간을 경영할 때에는 숲은 보면서 산은 보지 못한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의 심성 공간의 대부분을 산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백두대간은 따로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국토의 자연체계 안에서 봐야 할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라는 반도이기 때문에 남북이 자연히 환경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백두대간이란 개념은 잘만하면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야할 통일의 대간이 될 것이다. 신라 말 고려초에 백두대간이란 개념이 왜 필요했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한민족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자세로 백두대간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인용문헌

- 고운기 옮김, 일연 지음. (2001) 삼국유사. 홍익출판사, 495쪽.
- 구미래(2000) 한국인의 상징세계. 교보문고, 336쪽.
- 김경수 옮김, 이승휴 지음. (1999) 제왕운기. 역락, 315쪽.
- 노도양 옮김, 이중환 지음. (1988) 택리지. 명지대학교 문고 23. 명지대학교 출판부, 467쪽.
- 산림청(1997) 백두대간의 개념정립과 실태조사 연구. 산림청, 318쪽.
- 서정록(2001) 백제금동대향로 : 고대 동북아의 정신세계를 찾아서. 학교재, 488쪽.
- 신준환, 임종환, 윤충원, 오정수, 천정화, 노대균, 김철민, 이승호, 공지수, 이병천, 이우신, 임신재, 조현재, 배관호, 이도원, 이창석. (2003) 백두대간의 생태계 현황 및 관리범위 설정. 임업연구원 연구자료 제 198호. 세진기획, 서울, 420쪽.
- 양보경(1992) 신경준의 산수고와 산경표 : 국토의 산천에 대한 체계적 이해. 한국토지개발공사, 토지연구 3(3) : 135-145.
- 원경열(1991) 대동여지도의 연구. 동인인쇄, 219쪽.
- 이상태(1998) 조선시대 선비들의 백두산 답사기. 해안, 319쪽
- 최병현(2002) 도선의 풍수지리설과 고려의 건국이념. (국제문화재단 편. '한국의 풍수문화') 도서출판 박이정, 11~32쪽
- 최석기 옮김, 이익 지음. (1999) 성호사설. 한길사, 549쪽.
- 최석기, 강정화, 이정희, 양판석, 이영숙 옮김. (2001)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돌베개, 423쪽.
- 최진석(2001) 노자 도덕경. 소나무, 555쪽.
- 최창조(1990)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함인가. 서해문집, 505쪽.
- 한영우(2001) 우리 옛지도와 그 아름다움. 효형출판, 268쪽.
- 현진상(2000) 한글 산경표 - 우리나라는 산에도 족보가 있다. 도서출판 풀빛, 347쪽.